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성령강림절 후 첫째 주일은 오늘은 성 삼위일체이신 주님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교우들의 건전한 사귀를 위해 구별된 시간입니다.

존 웨슬리 회심 270주년을 기념하여 중구용산지방 선교부가 주관하는 집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십시오.

때-5월 18일 저녁부터 21일 저녁(오전 10:30, 저녁 7:30분)

곳-이태원교회 강사-김상현 목사(부광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연구소가 주최하는 월례 포럼이 19일 오후 5시 30분에 본 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이현주 목사님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의연금 5백 만원을 보냈습니다.

유영남 권사님께서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유화 두 점을 기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 밥그릇 운동을 하는 취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살림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우러르며 찬양합니다. 죽음의 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우리를, 죽음보다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폭풍과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함께 아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과제와 오락거리에 이끌리어 의미 없이 분주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생기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일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더 깊은 기도, 더 힘찬 일상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양재성 권미숙 김근중 정옥영 김정길 최숙화 김필순 박병구 박애순
 박창운 허정윤 배삼순 권호천 서원금 임원민 임수연 임주빈 최현옥
 전월수 최종미 조병주 홍순구 안홍숙 손성현

월정헌금:

이봉배 이유선 방극숙 박준희 이기분 전영자 전영규 김경수 김정애
 이갑재 김영순 배부례 고숙이 박찬정 최동운 김남종 오복순 권 순
 윤정화 구자훈 조순덕 권미정 이정은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윤 서정남 허현숙 문금석 김성한 조영순 박성실 박병구
 유순덕 연세대학교수총창단 제3남선교회 무명3

생일감사헌금: 박옥순

100주년 기념헌금 :

(100주년 헌금 누계 : 208,070,000원)

	장혜숙	장혜숙	야외교회	조순덕
	노순옥	정경례	교회	김미순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문영혜	박경선	김명순	문영혜
	안정숙	박애순	박옥순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야외	송의섭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김정애
	최숙화	권미정	야외	최숙화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야외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정현주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김희우
	송양진	유경순	야외	김명희
	이영란	박미영	이증자	윤정화
	박혜경	최영혜	야외	조항미

우리를 떨치지 마소서

주님, 우리를 측은히 여기소서.
 가엾이 여기소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어 만드셨으나
 당신 굳센 손길로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이렇듯 건재합니다.
 믿음, 희망, 사랑, 이 모두가
 당신 세 손가락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교회가
 당신 손가락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어
 나락으로 떨치지 마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더욱 견고케 하시어
 창조 때에 붙어넣으신
 당신 형상과 모습을
 우리 안에 새겨주소서.

(생티에리의 굴리엘모, 12세기)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돌아가십시오.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망각하고 헛된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주님께 집중하여,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우리, 낙심치 않게 지켜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5월 동교회	선교지로부터의 증언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귄!	김성한 장로, 조영순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손성현 전도사	김서현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김 극 집사

5월	영접위원	방문성 이인웅 문홍일 정경례 이영란 김진경
	헌금위원	윤석철 백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공동창조를 향한 여정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을 경축하는 길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여,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서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할 때 기쁨의 샘들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리라.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면서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 마음속에 사시는 당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당신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말을 하든 않든 오랜 침묵 속에서, 비록 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말이다. 그러노라면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실의가 견고하고 참신한 생기가 솟아나리라. 개인적인 친근한 만남 속에서 그분을 찾아내는 이러한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당신 안에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분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거든, 그렇다고 그분께 말씀드리라. 일상의 활동 중에서도 매순간 모든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라. 견디기 어려운 일들까지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견주지 말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비교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생을 허비하는가? 하나님을 잊었는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하여라.

당신의 모든 잘못들을 탓하고자 든다면 평생이 걸려도 못다 할 것이다. 보다 나은 일들을 해야 하리라. 당장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찬미하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믿기지 않더라도 말이다.

내심의 시련이 닥치고 외부의 물이해에 부딪칠 때는 불안의 독소가 끓고 있는 바로 그 상처 속에서도 사랑의 힘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

질은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듯 생각이 들거든 그분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즉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도록 여유를 드리라...사막같은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리라. 그 기쁨은 도취적인

희열이 아니다. 아무래도 좋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다. 영원의 샘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환희이다.

화해한 마음으로 투쟁하는 길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여, 진정 소박한 생활을 하며 화해한 마음으로 투쟁할 태세를 갖추라. 어디에 있던 당신은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서 투쟁하기를 두려워 말라. 그들이 믿는 이들이든 아니든간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구체적 유대를 갖는 그런 생활이 요구된다...말만 가지고는 아편 구실밖에는 못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기 자신과 싸워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각오를 하라. 이같이 일생을 건 일관된 자세가 설 때에 내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해한 마음으로 투쟁한다는 것은 불균형한 긴장상태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한 투쟁은 정력을 질식시켜버리기는커녕 오히려 활기찬 역량을 모두 발휘하게 만들 것이다.

지향이 왜곡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은 채 지낸다면, 화해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 반대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때 마음은 오죽이나 짊짊하리! 용서할 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혼자서는 남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입김으로 생기를 띤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일할 때 비로소 자신의 암담한 상태를 벗어나 공동창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친교의 모임 속에서 화해의 누룩이 될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

당신은 반죽 속의 누룩이 되고자 힘쓴다. 교회를 사랑하고자 힘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교회를 산산조각내는 내부의 분열에 너무도 자주 부딪치게 된다. 화해를 도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파괴하기보다는 건설하기를, 권고하기보다는 이해하기를 더 바랄 것이다. 언제까지나 교회 안에 머물며 교회의 약점이 변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호세 발라도, <<떼제 이야기>> 중에서